‘신행포교지’ 新 언론정체성으로 전법·포교 30년

현대불교신문 30년 발자취

정리=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현대불교 창간호.



①현대불교신문 현판 제막식 ②불교서점 여시아문 오픈 ③조계사 선원장 초청대법회 ④부다피아 오픈 ⑤신행수기 공모 시상식 후 기념사진 ⑥반가사유상 보내기 운동 ⑦부다피아 홈페이지 ⑧부다피아 어린이 캠프-하와이

현대불교신문이 걸어온 30년

대행 선사 원력으로 1994년 10월 15일 창간
사시 …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 모토
신행·포교·수행 단체 발굴, 신행수기 공모 등
‘신행·포교지’로 교계 新 언론 정체성 선보여
문서포교에 다양성·매체포교 저변 넓힌 계기
불교계 언론사 최초 자체 편집 시스템 구축
한국불교 중흥 위한 연중 캠페인 매년 진행
교계 최초 인터넷 웹사이트 ‘부다피아’ 오픈
인터넷 뉴스 사이트 붓다뉴스(현불닷컴) 오픈
불교계 신문 최초 ‘2섹션’ 편집 시스템 정착
불교대중화 위한 특별법회 사찰과 공동 개최
한국불교 역사의 현장과 소식 빠짐없이 전해
도서출판·불교서점 ‘여시아문’으로 불서보급
‘중·고교 데생용 미륵반가상 보냅시다’ 전개
교도소, 군법당 등에 법보시운동 활성화 선도
부다피아어린이캠프 개최로 어린이포교 앞장
한국의 근대 고승 기념 메달로 제작 보급해
한국의 근세 고승의 자수 진영 작품 전시회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공’ 운영 뉴미디어 열어

“‘현대불교’는 언제나 거짓 없는 목탁소리를 낼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오로지 붓다의 기관지임을 고집할 것이며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바른 언론의 자세를 지켜나갈 것이다.”

– 창간사 중에서 –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 원력

한국불교가 중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오늘,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30주년을 맞았다. 주간 발행 현대불교신문은 한마음선원 창건주 대행 선사의 원력으로 1994년 10월 15일 창간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의 사시와 ‘하나 더 있어서 좋은 신문’을 모토로 한 현대불교신문 창간은 한국불교 문서포교에 다양성을 더하고 매체포교의 저변을 넓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며, 전법은 물론 사부대중의 수행과 신행에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한국불교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1994년 10월 14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창간 기념 행사에는 불교계와 정계, 재계, 문화예술계 인사 2500여 명이 참석해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했다.

‘신행포교지’ 新 언론정체성

현대불교신문은 1994년 창간 당시 불교계 신문사로는 후발 주자였다. 하지만 새로운 개념의 언론 정체성을 제시하며 독창적인 포교 패러다임을 열었다.

△불교계 전반의 소식과 새로운 정보를 전하는 것은 물론 대중에게 수행과 신행, 그리고 포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신행포교지’라는 새로운 언론 정체성을 선보이며 전방위적인 매체전법의 길을 열었다.

드러나지 않은 전국의 신행·수행 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면에 소개하고, 신행수기를 공모하는 등 신행과 수행의 영역을 넓히고 많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신행과 수행의 붐으로 이어져 불교의 생활화와 현대화를 이끌어냈다.

△현대불교신문은 승가와 재가의 거리를 좁혀 불교의 대중화를 도모하는 불사에도 진력했다.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조계사)’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범어사)’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등 특화된 법회를 대형사찰과 공동으로 개최해 대중과 시대의 선지식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연중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은 창간과 함께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았다.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새롭게 해낸 일들이 많다.

△불교계 언론사 최초로 자체 편집 시스템을 구축해 취재와 편집의 이원화를 실현했으며, 교계 신문 최초로 법공양 면 도입과 ‘2섹션’ 편집을 시도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증면을 통해 유·무형으로 교계 신문의 저변을 확장시켰다.

△현대불교신문은 한국불교 언론시장에서 후발 주자였지만 한국불교 발전에 대한 원력은 그 어느 매체보다 견고했다. 그 실천의 하나가 현대불교의 상징과도 같은 ‘연중캠페인’이다.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새싹불자를 키우자,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도난 문화재를 찾읍시다, 나눔의 손잡기, 군포교합시다, 함께 창립 30주년을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하는 공동캠페인, ‘의료 취약국에 자비의 의료물품을 보냅시다’, ‘(사)다나와 함께하는 소외계층 청소년 여성위생용품 나눔-소녀에게 응원을’ 등 한국불교와 불자들을 위한 연중캠페인을 펼쳐 한국불교와 대중에게 늘 밝은 길을 제시했다.

원력 중의 원력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원력 중에는 ‘불교의 세계화’가 있다. 한국불교 전체의 원력이라고 생각된다. 어렵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원력이다.

△1996년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세계화를 연다. 불교계 최초의 인터넷 웹사이트 ‘부다피아’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현대불교 전략정보팀이 자체 개발한 ‘부다피아’는 1996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해 한국불교 종단, 선(禪), 불교출판 등 국·내외 불교 관련 정보를 당시 150개국 5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다. 당시 부다피아에서는 화상회의·이메일·링크서비스 등의 기능을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이에 따라 포교영역을 세계로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00년 인터넷 실시간 뉴스 사이트 붓다뉴스(현 인터넷 현대불교·hyunbulnews.com)를 시작한 것 또한 한국불교 언론사에서 비교 불가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현대불교신문은 새로운 세기를 맞아 불교계 언론의 방향을 인터넷으로 확장시켰다.

△2020년부터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공’을 오픈했다. ‘혜자 스님과 함께하는 대행 스님 주인공 관법’ ‘신중일 기자의 불모지(불자라면 모르면 아쉬운 지식)’ 등 다양한 콘텐츠로 뉴미디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정론직필 언론사 본분 진력

현대불교신문은 언론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한국불교의 역사적 현장에 늘 함께했으며, 대중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 진력했다.

△송광사 16국사 진영 도난(1995), 가장 불교적인 방법으로 국민적 감동을 이끌어낸 수경 스님 새만금 삼보일배(2003년), 고속철 천성산 관통 반대 지율 스님 단식 38일, 2005년 낙산사 화재와 2009년 낙산사 복원 불사 회향, 영통사 복원, 공직자 종교편향으로 비롯된 범불교도대회(2008년), 무소유 법정 스님 원적(2010년), 한국 비구니 승단의 큰 스승 대행 선사 원적(2012년), 간화선 세계 무차대회 성료(2015년), 한국산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상월결사 43일 인도순례, 코로나 팬데믹 산문 폐쇄·연등회 취소 ‘B-방역’, 상월결사 회주 자승 대종사 원적 등 한국불교의 역사적 현장과 소식을 빠짐없이 전함으로써 정론직필의 언론사 본분을 다하는 데 진력했다.

다양한 포교…여시아문, 마하몰, 미륵반가상

현대불교신문은 언론사로서의 본분은 물론 언론사로서 해야 하는 모든 불사에 매진했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을 통해 많은 불서를 발간하고,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을 통해 불서를 보급했으며, 불교계 최초의 불교문화상품 전문 쇼핑몰 마하몰을 선보임으로써 전법과 불교산업 확장에도 이바지했다.

이 밖에도 ‘중·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상을 보냅시다’ 운동, 교도소, 군법당 등에 신문보내기 운동인 ‘법보시’ 운동,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한국 근대 고승 기념메달 제작 보급, 근세 고승 자수진영 작품 전시, 인도 녹야원에 최초의 한국불상 봉안 등 한국불교 저변확대와 포교 확장에 앞장섰다. 특히 1996년 진행한 데생용 미륵반가상 보급 운동은 일반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할 만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창간의 처음 정신인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30년을 달려온 현대불교신문은 이제 새로운 30년의 비전을 준비하며 제2의 창간으로 도약한다.



해인삼매 속에 펼쳐지는 바로 지금 여기 이곳 원각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

방장 원각 대종사
주지 혜일

사부대중 일동

보살계 수계대법회 10월25일~10월26일
사천왕상 점안식 10월26일
– 많은 동참바랍니다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www.haeinsa.or.kr
☎(055)934-3000 Fax 934-3010